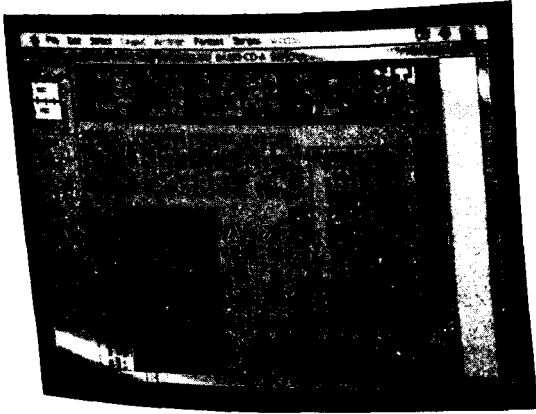


News Point



■ 체신부 DBMS기술개발에 97년까지 80억 투자

체신부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돼 있는 국내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97년까지 총 8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관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 DB분야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DB 사업자의 패킷망 이용료를 감면하는 등 국내 DB산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8일 체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의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DB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체신부는 오는 97년까지 4백 15건에 이르는 공공DB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나 지역정보화 단체 등 민간단체들의 정보보유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이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내에 1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DB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 사업에 착수했다.

체신부는 또 DB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80억원의 재원

을 출연받아 DB제작 및 운용·검색 등에 필요한 DBMS를 국내 기술로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전자통신연구소(ETRI)주관으로 학계 등과 공동개발에 나설 DBMS는 기초 기술을 비롯해 멀티미디어·자연어 검색시스템·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등이다.

체신부는 또 내년중에 DB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도를 도입, 이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DB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DB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밖에 DB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DB이용편의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연동 운용하기로 했다.

체신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보통신 요금제도 개선방안은 PC통신 이용요금 인하를 비롯해 DB사업자의 패킷망 이용료 감면·DB이용요금 회수대행제 도입 등이다.

■ 日 JOIS 서비스 둘러싸고 2개 기관 신경전

정보산업을 둘러싼 부처간의 영역다툼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 산하 산업기술정보원과 과기처 산하 연구발정보센터 등 두 국가 DB기관이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가 구축한 일본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JOIS)의 일·한 번역 서비스 사업권을 놓고 심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기술정보원(KINITE)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는 내년부터 JOIS의 과학기술정보를 일·한 번역시스템을 이용, 한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전산망 도입심의의위에 일·한번역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일본 후지쯔사의 메인프레임 도입 신청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JOIS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정부 산하 기관이 경쟁적으로 일본의 DB서비스 사업을 벌이는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표출되고 있어 사전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기관은 지난 4월 연구개발정보센터 설립 당시부터 DB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대립양상을 보여 왔는데, 최근 일·한번역 시스템 사업으로 또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 두 기관간의 대립문제는 적법성시비로까지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미 3~4년 전부터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호협력협정을 체결, JOIS 서비스를 일본어로 국내 수요자에게 공급해온 만큼 JOIS를 한글로 서비스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연구개발 정보센터가 갑자기 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개발 정보센터측은 "일반 산업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연구개발정보센터를 설립했다면 과학기술정보에 관련된 업무는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두 기관은 현재 사업단일화를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전조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천리안 정보구성 대폭개편, 검색기능도 추가

(株)데이콤(대표이사 사장 : 申允植)은 최근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자사의 종합정보서비스인 천리안의 정보내용 구성을 대폭 개편하고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편된 천리안 정보내용 구성을 보면 기존보다 메뉴선택의 경로를 단순화하고, 그 동

안 분산되어 제공해오던 유사정보들을 하나의 정보그룹으로 통합하는 등 정보내용 구성을 체계적으로 재편해 컴퓨터통신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천리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데이콤은 또 영문단어로 된 단축어를 입력시켜 이용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던 영문 키워드(kdy-word)방식 이외에도 한글단어를 입력, 사용할 수 있는 "정보소재 찾기"와 아울러 컴퓨터통신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관련그룹별로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정보분야별 동시검색"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정보소재 찾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그 정보로 이동하여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아울러 이 서비스는 정보검색시 사용하는 단축명령어(keyword)에 따라 그 정보와 관련된 우리말 색인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검색에 필요한 명령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정보분야별 동시검색"은 여러 정보제공자(IP)로부터 제공되는 유사분야의 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보성격별로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문에 나온 기사 중 '컴퓨터통신'에 관련한 기사를 검색하는 경우, 그전에는 각각의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내용을 하나하나 검색해야만 하였으나, 이 기능을 이용하면 천리안에서 제공하는 신문정보(중앙일간지, 경제지, 영자지, 스포츠지, 지방지, 전문지 등) 내용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데이콤은 이밖에도 천리안내에 "공공정보", "지역정보", "농수산정보"를 비롯 각종 민원관련 서비스와 지방 뉴스 등을 제공하는 「공공/지역/농수산」, 「회원정보」항목을 신설하고 기존의 스페셜 코너를 「방송/컴퓨터문단/독자투고」로 명칭을 바꿔 "라디오 참여 코너", "TV참여 코너", "문단/테마연재", "리서치/번역 서비스", 그리고 각 신문사의 "독자투고"를 세분하여 제공한다.

한편 데이콤은 이번의 천리안 정보내용 구성

개편과 함께 오는 '94년까지 1억 6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우수한 해외 공개자료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공개자료실에 자료를 등록하는 회원에게 무료로 자료를 수신받을 수 있는 「공개자료실 활성화 방안」을 수립,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 KT, 성능개선된 하이텔단말기 전국 7만대 무상보급

기존 하이텔 단말기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신형 하이텔 단말기와 하이텔 통신용 소프트웨어인 하이콤이 12월부터 대량 보급된다.

14일 한국 통신은 지난 91년과 92년에 7만대의 하이텔 단말기를 보급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기존의 단말기보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7만대의 신형 하이텔 단말기를 전국에 무상으로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신형 단말기는 파일저장 기능(A4용지 25장 분량)을 비롯해 송·수신 기능, 화면저장 기능 등을 탑재, 기존 단말기의 경우 메일을 보내거나 게시물을 올릴 때 온라인 상태에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 한편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단말기는 시리얼 통신기능을 추가해 ISDN(종합정보 통신망)서비스는 물론 음성카드를 연결해 음성 DB(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카드리더를 부착해 신용카드나 IC카드를 통한 각종 거래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통신은 또 PC사용자들의 정보통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하이텔 통신용 소프트웨어인 하이콤(버전 2.1) 10만개를 보급키로 했다.

이번에 보급하는 하이콤은 하이텔에 대한 자동통화 기능과 모뎀상태 및 통신포트 점검기능을 추가하고 파일전송 프로토콜을 내장해 파일 송·수신 작업을 간편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일반PC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는 이용자의 편의기

능을 대폭 보완한 하이콤 3.0버전을 보급할 계획이다.

■ 한국PC통신 일부정보 종량제 적용키로

한국PC통신(대표 김근수)은 앞으로 우수한 정보제공(IP)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일부 서비스에 한해 종량제 요금체계 적용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PC통신은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그동안 회원제로 운영해 오던 증권투자 자문회사가 제공하는 투자분석정보에 분당 3백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종량제로 전환하는 투자분석정보는 대한투자연구소·현대투자 연구소·염도명투자경제연구소·동아투자자문·보람투자자문·한국증권경제연구소·한맥투자연구소 등 11개 전문 투자자문회사가 제공하는 증권에 관한 투자 분석정보 등이다.

이에 따라 한국 PC통신이 이 종량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정보수는 지난 8월에 실시한 무역정보·해외전자정보·기업경영 정보·인물정보·일본히트상품정보·자금시장 정보·무역시장정보·부동산뱅크정보 등 8개 정보를 포함해 총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 입시철 「진학정보」 이용급증

'94년도 전, 후기 대학입시를 앞둔 70만 수험생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대학선택에 관한 각종정보를 컴퓨터통신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내 최대의 대입학력평가 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개발, 지난 12월 1일부터 (株)데이콤(사장 申允植)의 종합정보 서비스인 천리안을 통해 제공중인 「대학 진학정보」의 경우, 이용건수가 하루평균 7백여건에 달하는 등 내년 1월 본격적인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콤과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천리

안을 통해 「대학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학력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던 예년과는 달리 '94년부터 대폭 달라지는 새 입시제도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입시정보를 제공,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대학진학정보」는 현재 「대학정보」를 비롯, 「학과정보」와 「입시정보」, 「진학정보 뉴스」, 「대학입시제도 총론」 등 크게 5개 정보로 세분돼 제공되고 있다.

「대학정보」와 「학과정보」에서는 전국 1백27개 전, 후기 대학(교)과 5백 58개 학과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과별 특성, 장학금 제도, 기숙사 및 대학원 현황과 졸업후 진로 및 취업전망 등 각종 정보를 수록, 수험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대학별 입시정보」는 전국 각대학(교)의 '94년도 정원 및 신입생 전형요강을, 「학과별 입시정보」는 각 학과의 '94년도 모집정원과 '93년도 경쟁률, 그리고 지난 8월과 11월에 실시된 1, 2차 수능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학과별로 지원가능한 점수와 표준 내신등급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다.

이밖에 「진학정보 뉴스」와 「대학 입시제도 총론」에서는 각 신문에 발표된 대학진학 관련기사와 신입생 선발유형 및 일정, 특차전형, 복수지원제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각 대학별 전형요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을 지도하는 학부모와 일선교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한편 데이콤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시간이 없는 수험생을 위해 「학과별 입시정보」를 이용할 필요 없이 1, 2차 수능종합 점수와 내신등급만으로 지원가능한 대학과 학과, 모집정원을 즉시 찾아볼 수 있는 「대학 및 점수별 지원참고표」도 추가로 개발, 12월 14일 부터 천리안을 통해 서비스한다.

■ 「대학수학능력 학습정보」서비스 개시, 음성기능도 추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통신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를 통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안방학습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컴퓨터를 통한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株)데이콤(代表理事 社長: 申允植)은 컴퓨터 학습 열기를 더욱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과외비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천리안 「아카데미아 대학수학능력 학습정보」 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개시한다.

(株)푸름소프트가 정보를 제공하는 천리안 「아카데미아 학습정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I 등의 구분에 맞추어 각 영역마다 이용안내, 기본학습, 문제은행, 통신강의, 학습상담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 학습프로그램으로서의 최초인 「아카데미아 학습정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학습안내와 기출문제, 연습문제, 발전문제, 종합문제, 모의고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난이도별 학습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는 국내 최초로 외국어영역의 듣기평가를 효율적이고도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 음성학습기능이 있어 외국인의 음성을 원음 그대로 청취하며 학습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외에도 각급 학교선생이나 유명 학원강사 또는 각종 매체의 강의를 컴퓨터를 통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통신강의」, 전문교사와 온라인 대화방식으로 학습내용에 관련된 정보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학습상담」등도 함께 제공되므로 유용하다.

또한 「아카데미아 학습정보」는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어 컴퓨터 자판(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중 윈도우 기능과 학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이 지원되어 있어 흥미롭게 학습 능률을 올릴 수 있다.

천리안 「아카데미아 학습정보」는 3단계로 나누

어 서비스되는데, 우선 1단계로 외국어영역 중 일부를 12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하고, 다음 단계로 외국어영역 중 나머지 부분을 12월중에 추가 서비스하며, 이어 3단계로 94년초에 언어영역, 수리탐구영역I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마 학습정보”는 회원제 서비스로서 일단 천리안에 가입하면 (가입비 1만원) 회원으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도 별도의 구입비용 없이 무료로 받을 수(download)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카데미마 회원일 경우 10파일을 기준으로 월 10,000원이며, 파일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아카데미마 학습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AT(286)급 이상의 개인용 컴퓨터에 VGA 칼라 모니터, 그리고 모뎀을 갖춘 후 데이콤의 천리안 교육정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되며, 음성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블래스터(V 1.5 이상) 또는 이와 호환되는 음악카드(사운드 마스터, 옥소리 등)가 필요하다.

■ 소주제별 전문DB 이용자 선호

국내 전자출판물 이용자는 대형 데이터베이스(DB)보다는 소주제별 전문DB를 많이 찾고 음성과 동화상 정보가 더욱 풍부한 자료를 선호하고 있다.

1일 국립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개관 이래 4개월 동안 전자도서관을 찾은 사람은 1만6천여명으로, 하루 평균 2백50여명이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률에선 CD-ROM 도서 및 기타가 74%, 소주제별 DB는 20%, 서지 정보는 DB는 5%, 국내제작 CD-ROM 도서는 1%로 나타났다.

외국에선 이용률이 25%인 서지정보DB의 이용률이 국내에선 5%로 나타난 것은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등 다른매체보다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데다 선택의 가짓수가 매우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CD-I(10대)와 CD-ROM드라이브(15대)의 1대당 평균 회전율은 각각 3회와 2회로 나타나 CD-I의 이용률이 얼마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CD-I의 검색이 쉬우며 검색과정에서의 흥미요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CD-I 및 CD-ROM 드라이브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동일하게 30회에 머물러 다른 매체보다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이는 기기조작의 미숙과 언어장벽, 주제의 선택폭 협소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자 도서관측은 또 현재 전체이용자의 80%를 웃도는 대학생등 전자 도서관 주 이용자들이 문자정보와 스틸사진이 수록된 것보다는 음성 및 동화상정보가 입체적으로 수록된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주로 소주제별 DB나 백과사전 등 참고도서를 찾는 경향과 한데 맞물려 있어 앞으로 국내 전자출판물시장이 색인등 2차 정보 DB보다는 기존책에 입체 정보를 추가하거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전문DB, CD-I 및 CD-ROM 타이틀에 의해 주도될 전망이다.

■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데이터베이스응용 국제학술대회(ICDA '94)” 개최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에서는 오는 1994년 1월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실세계응용(Real World Applications)”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서는 현장 응용의 시도, 사용자의 경험, 산업계나 학계의 중요한 실세계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응용에 중점을 두고 집필되는 국내외의 우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연락처 :

대회조직위원장(임만직, 한국엠제이엘(주))

TEL : (02)767-2201

부위원장(우승술, 한국통신) TEL : (02)750-5600

학술위원장(문송천, KIST) TEL : (02)958-3315